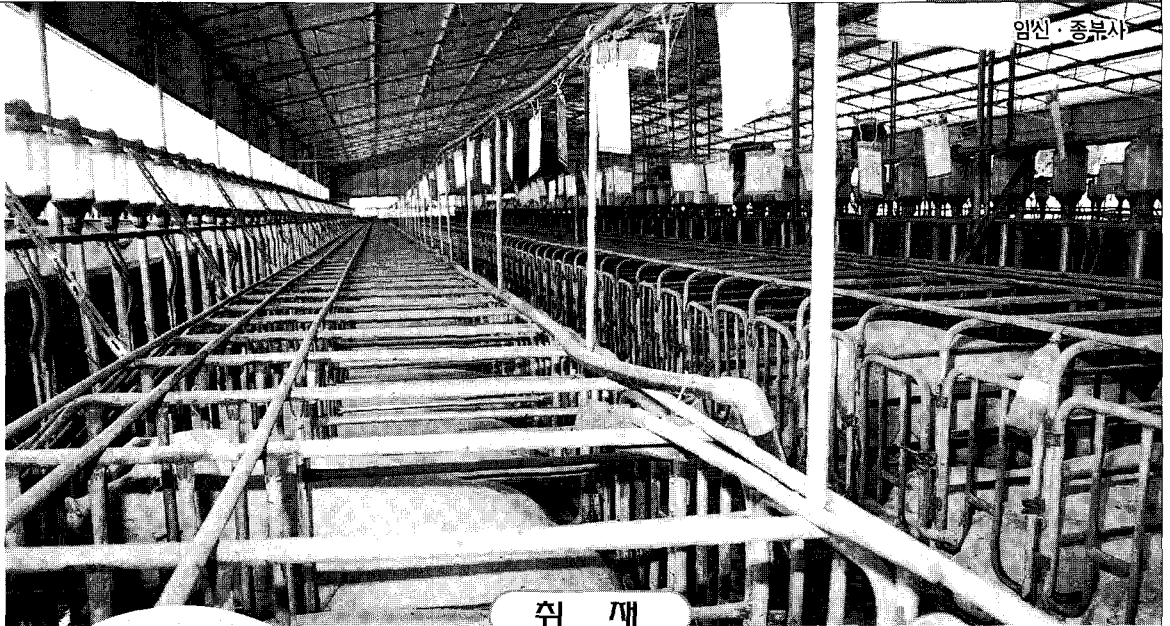


임신·종부사



취재

저돈가 시기에 높은 수익 올리는 용인 선덕농장



▲ 백금현 사장

통계청 발표 6월 소비자 평가지수가 최저로 나타나는 등 사상 유례없는 경기 하락으로 소비가 꾀꾀 얼어붙었다.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인한 도살, 매몰과, 소모성질병으로 인한 성장지체, 또 유사산 발생으로 공급물량이 크게 감소한데도 불구하고 돼지가격은 예년보다 낮은 가격에서 맴돌

고 있다.

추석이 지난 후 하반기에는 늘어나는 출하두수와 소비위축으로 크게 돈가가 하락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저돈가 시기에 양돈 농가들은 생산비를 줄이고,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어려운 시기에 높은 A, B 등급 출현율과 브랜드 출하로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육가격을 적용받아 어려움을 넘기고 있는 농장이 있어 찾아보았다.

사료, 종돈, 사양 통일로 브랜드육 생산

경기 용인 선덕농장(대표 백금현, 66세)은 모돈 580두, 약 6,000두 규모 농장으로써 일괄 사육농장이다.

분만사 아주머니 1명까지 총 9명이 일하고 있으며, 육성·비육사 8동, 분만사 2동, 자돈사 3동, 임신·종부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로 초기 이유자돈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신 생후

〈표 1〉 선덕농장 출하 대금정산서 내역

날짜	출하 두수	등 급				A, B등급 출현율	평균 출하체중	인센티브 (두당 3,000원)	패널리티 (두당 5,000원)	등급판정 수수료(300원)	총 매입액	주간 평균가격 (서울기준)
		A	B	C	D							
7/29	42두	27	11	3	1	90%	109.5kg	81,000원	20,000원	12,600원	8,090,000원	2,458.5원
7/31	85두	51	24	7	3	88%	108.0kg	153,000원	50,000원	25,500원	16,214,000원	2,458.5원
8/6	84두	44	18	9	13	74%	112.0kg	132,000원	110,000원	25,200원	17,130,000원	2,555.8원
8/7	43두	32	10	0	1	98%	106.5kg	96,000원	5,000원	12,900원	8,402,000원	2,555.8원
8/8	43두	18	16	5	4	79%	107.8kg	54,000원	45,000원	12,900원	8,420,000원	2,555.8원

• 용인시 축산기업조합

21~25일에 다소 늦게 자돈을
이유시킨다.

육성사 이동은 일반적인 경
우와 마찬가지로 60~70일령
에 실시한다.

육성사는 슬러리, 비육사 2
동(500평)은 톱밥돈사이며, 나
머지 비육사와 분만사 등 대
부분은 스크레파 돈사이다.

분뇨처리는 전문 처리업체
에 월 200만원씩 톱밥 보조비
를 주고 맡기고 있다. 예전에는
5톤(약 32루베, 1루베=1
㎡) 트럭 100두 분의 톱밥을
써 분뇨를 처리했었다.

사료는 초창기부터 도드람
사료를 전량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 브랜드인 황토포크로
전량 출하하고 있다.

백금현 사장은 지난 85년,
육계와 비육우와 함께 양돈을
시작하였다가, 지난 92년 정책
자금을 받아 95년부터 현재의
6,000두 규모 양돈장을 운영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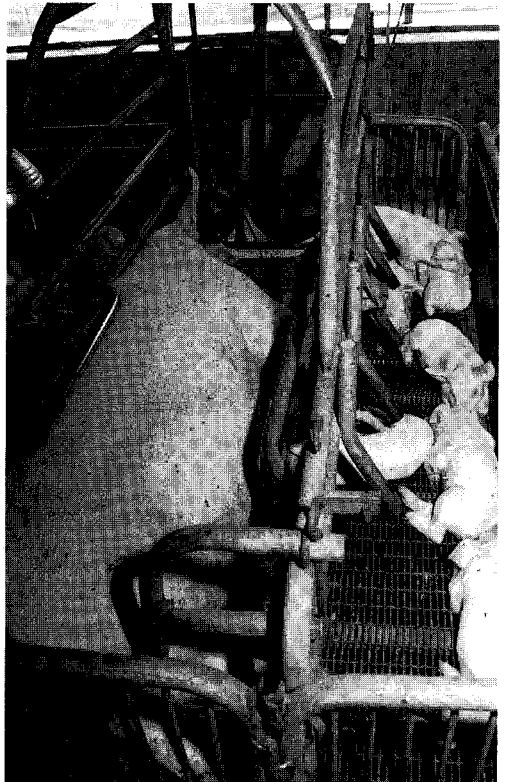
높은 지육률과 A, B 등급 출현률로 수익 극 대화

선덕농장은 지난 99년부터
용인시 축산기업조합과 계약
을 맺고 지역 브랜드인 황토
포크를 생산하고
있다. 40~60% 일
부 브랜드화를 해
오다, 지난 해부터
는 전 두수에 대해
참가제를 급여하고
브랜드 출하하고
있다.

원래 A, B 등급
80% 이상의 품질
좋은 돼지고기를
생산하던 선덕농장
은 브랜드화를 하
면서, 지육률을 약
70% 정도로 일반
적인 경우보다 매
우 높게 받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지육률이 66-68%

인 점을 고려 할 때 판매수익
은 매우 크게 차이가 난다. 또
한 선덕농장은 A등급 돼지에
대해 보조금 3,000원씩을 브랜
드 업체로부터 별도로 받고
있기 때문에 수익상의 잇점이
크다(표 1)(단, 80%이상 A, B



▲ 분만사



▲ 비육사

등급이 나와야 하는 조건이며, C,D등급에 대해서는 5,000원씩의 패널리티를 매기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7월 29일 선덕농장 출하두수는 42두였으며, 이중 A등급이 27두, B등급이 11두, C등급이 3두, D등급이 1두가 나왔다. 이중 A등급을 받은 27두에 대해서는 3,000원씩 총 81,000원의 인센티브를 더 받고, C,D등급 4두에 대해서는 패널리티 5,000원씩 총 20,000원을 삭감했다.

등급판정 수수료 12,600원을 뺀 판매금액은 총 8,077,400원으로 두당 약 192,319원에 판매된 것이다. 7월 28일(월)부터 8월 2일(토)까지 평균 지육가격(서울)이 2,458.5원인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가격을 받은 것이다.<(표 1) 참조>

블론 브랜드화를 하면서 다소 첨가제 가격은 추가로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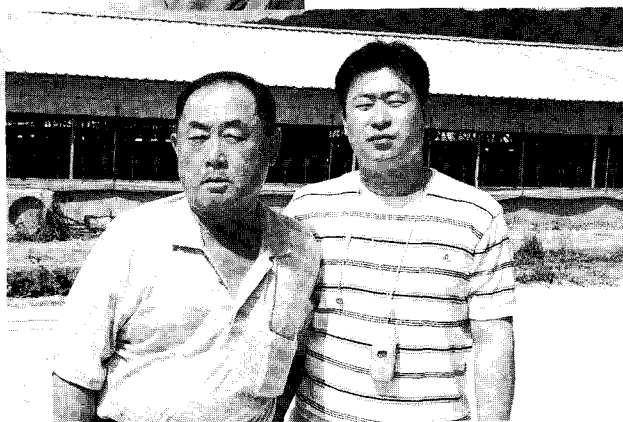
된다. 한약찌꺼기와 황토를 섞어 만든 황토포크 첨가제는 사료 5톤에 60kg(10kg 6포대)씩 섞여 먹이며, 비용은 한달에 300~4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170일령 이상, 철저한 선별출하로 고품질 돈육 생산에 주력

선덕농장 백 사장은 이렇게 높은 지급률을 받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돼지고기의 품질을 균일하게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사료와 종돈을 통일시키고 있으며, 젖돈 때부터 출하시까지 철저히 첨가제(한약+황토)를 먹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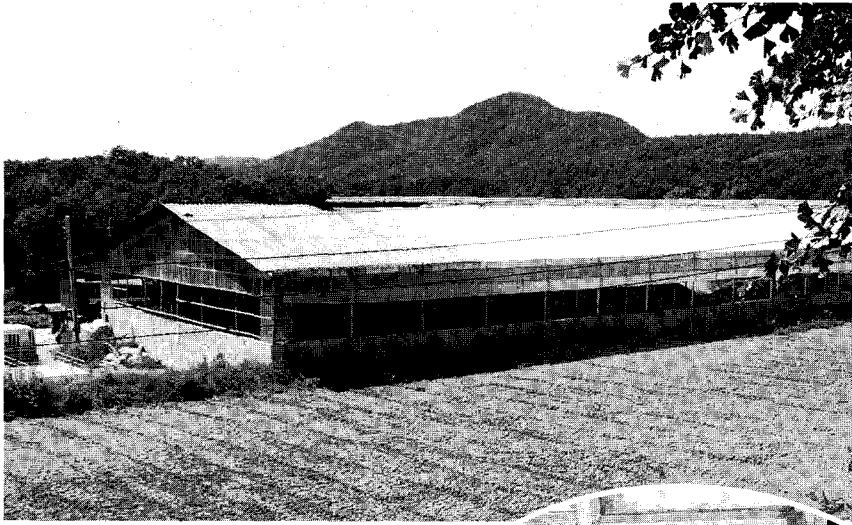


▲ 백금현 사장(좌측)과 사료공급을 맡고 있는 도드람 양돈조합 이태영 대리

또한 평균 출하체중을 110kg으로, 출하일령을 170~175일로 다소 늦게 출하하면서 탄탄하고 품질 좋은 돼지고기를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백 사장은 85% 이상의 높은 A, B등급 출현율을 위해 철저한 선별출하를 실시한다. 약 20마리로 구성된 한돈방 내에서도 출하 시에는 위축, 미성장돈은 출하를 늦추고 옷자란 돼지들은 조기출하를 통해 철저히 솥아 낸다.

이러한 노력이 쌓여 선덕농



▲ 월 200만원씩 틈밥 보조비를 지원하고 용역에 맡기고 있는 퇴비사

장의 돼지는 육질과 품질에서 항상 우수하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더욱 높은 가격을 보상받고 있다.

선덕농장 백 사장은 “돈가 하락시 높은 지급률과 안정적인 출하처가 농가 경영에 도움이 된다”며 “브랜드화 이전보다 년말 정산시 수익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브랜드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부가가치 높은 돼지고기 생산에 다른 양돈인들도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뇨처리, 인력문제가 가장 큰 고민

백 사장은 농장 운영의 가



▲ 황토포크 브랜드 출하를 위해 사료에 섞여 먹이는 한약재

장 큰 애로사항으로 분뇨문제와 인력문제를 꼽는다. 분뇨 처리는 외부 용역업체에 맡겼지만 여전히 가장 신경 쓰이고 골치 아픈 문제라고 한다.

또한 인력문제는 지난 해 초 농장 전체적인 관리를 맡던 농장장이 그만두면서 크게 농장성적이 떨어졌으며, 전문 양돈인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전했다.

선덕농장은 농장 인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9월 8일 해외연수생(우즈베키스탄) 4명을 받을 예정이기도 하다.

선덕농장 백금현 사장은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양돈업을 경영하고 있다.

특히 용인지역 등 서울근교 지역의 많은 양돈농가들이 돈가가 높은 4, 5, 6월에는 일반상인에게 돼지를 판매하다가 돈가가 낮은

9, 10, 11, 12월 들어서는 육가공공장에 돼지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백 사장은 이러한 흔들림 없이 자신 있게 키운 돼지 전 두수를 브랜드 출하하고 있으며, 좀 더 나은 돼지고기를 생산해 적당한 대가를 지불받고 있다.

돈가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흔들림 없는 안정된 농장경영이 필요하다. **양돈**